

제 1 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을 마치고

제 1 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이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용평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14년간에 걸친 고분자 하계대학 프로그램 대신에 한국 고분자 학회의 대표적인 여름행사로서 올해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기업체, 학계, 출연연구소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심포지움을 만들 수 있었다. 더우기 공식적인 장마기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는 전날까지 맑은 날의 계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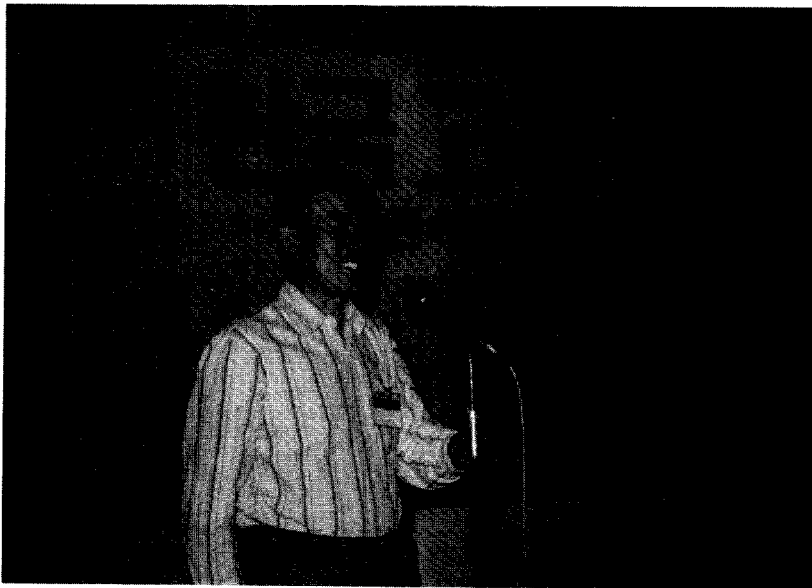
금년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 강좌의 주제는 고분자의 R&D, 산업전망, 교과과정 및 환경정책으로 약간 폭이 넓었지만 산·학·연이 협동하여 국내 고분자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모색에 대한 것이었다.

첫날 오후에는 김우식교수(경북대)의 국내의 고분자학과 교과과정, 대야상무(호남석유화학)와 민태익전무(한화그룹)의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의 R&D비교에 대한 잘 준비된 강의가 있었다. 대야상무는 일본말로써 발표하였는데 통역에는 임승순 총무이사가 많이 수고하였다. 끝이어서 저녁식사를 부페식으로 하였는데 대부분 회원의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회원들간의 친교는 물론이고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끼리 즐겁게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여고졸업후 처음 만나는 동창생들과, 만나자 마자 친구가 되어버린 어린이들이 눈에 띄었다.

둘째날에는 김광웅박사(KIST)의 페플라스틱 재활용기술, 구민회소장(생산기술연구원)의 국내섬유산업의 전망, 이정성사장(럭키)의 국내 고분자산업의 전망의 세 강좌가 있었다. 모두 유익한 내용이었고 회사의 최고경영진의 고충, R&D 및 사업방향결정의 어려움 등이 유머와 함께 강조되었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버스 등을 이용하여 오대산 월정사를 관광하거나 동해안 바닷가에 물놀이를 가는 등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맑은 날씨이어서 관광, 물놀이, 운동하기에 모두 좋았다. 저녁식사 후에 호텔로비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전의 강의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세째날은 장성기과장(환경처)의 페플라스틱 관리정책에 대한 강의를 마지막으로 제 1 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의 막을 내렸다. 3일간의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동안 불편한 점을 이해해 주고 협조하여 주신 참가회원들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참가회원을 위한 선물을 제공해 주신 태평양화학과 동성화학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기획간사 이영철〉



참가자 명단

전국대학교	허 정 립	선경인더스트리	박 영 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 수 영
경북대학교	김 우 식	선일포도당	김 영 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 태 석
경희대학교	주 동 준	성균관대학교	김 진 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 용 식
고분자학회 부회장(아주대)	한 만 정	성균관대학교	이 두 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안 광 덕
고분자학회 회장(KIST)	김 은 영	유공	김 영 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 철 립
금호석유화학	이 호 실	유공	옥 명 안	한국과학기술원	김 성 철
대림산업	김 형 일	유공	이 해 원	한국과학기술원서울분원	조 의 환
대우자동차	한 근 태	유공	하 만 권	한국과학기술원서울분원	김 진 백
럭키	김 인 현	전북대학교	이 종 문	한국화학연구소	최 길 영
럭키	장 성 기	PPG-동주	남 준 현	한양대학교	임 승 순
럭키고분자연연구소	여 종 기	코오롱	오 상 열	한양화학	김 상 현
럭키고분자연연구소	이 형 만	포항공대	박 찬 언	한화그룹	민 태 익
럭키고분자연연구소	인 주 환	한국Ciba-Geigy	진 두 칠	호남석유화학	Ohno Shigeru
삼양그룹	이 진 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광 응	호남정유	박 준 서
생산기술연구원	구 민 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낙 중	호남정유	함 태 수
생산기술연구원	이 영 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영 하	환경처	장 성 기
생산기술연구원	허 완 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재 진		
서강대학교	이 후 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 준 경		합계 52명

한민족 종합 학술대회 후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주최하고 관련 학회에서 후원하는 한민족 종합 학술대회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8월 10일에서 13일까지 열렸다. 고분자 Session은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26명의 국내의 학자들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학계와 연구소에서 8명이 참가하였으며 미국에서 15명, 일본에서 2명, 구 소련에서 1명이 고분자 신소재 및 응용, 가공분야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외에서 참가한 학자들은 산업계 참가자가 다수를 차지하여 고분자 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한 소개와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또한 본 학회에서는 그동안 재외 과학자들의 교류에 헌신적으로 힘써온 현건섭 박사(Dow Chemical)에게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약 800여명의 고분자 관련 연구자들이 학술 발표장을 찾아 성황을 이루었고, 참석자들은 10일 발표가 끝난 후 1층 로비에 마련된 간담회 장에서 타 Session 참가자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등 시종 의미깊은 시간이었다.

〈기획간사 유영태〉

